

[중앙일보/2018.6.4] 경북대 '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' 3개 연구소 선정

중앙일보

경북대 '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' 3개 연구소 선정

[뉴스1] 일렉 2018.06.04 17:05



[대구=뉴스1]박준 기자 =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, 환경과학기술연구소, 고에너지물리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.

이에 경북대는 최장 9년간 연구소별로 각각 59억원씩 총 177억원을 지원받는다.

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며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연구사업이다.

올해 신규사업은 총 32개 과제가 선정됐다.

이번 선정으로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는 거주환경 단말간 자율군집형 커뮤니티컴퓨팅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.

또한 사용자의 의도적인 설정·명령 없이 도어락, 시계, 번기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단말들이 스스로 사용자를 인지, 장기간 행동 내역을 분석해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 여부, 노화나 만성병 진행 유무를 스스로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한다.

환경과학기술연구소는 지속가능한 물, 에너지 자원 생산을 목표로, 방사성 폐기물 및 신중유해오염물질의 환경복원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.

아울러 방사성 폐기물 및 수계 내 신중유해물질의 처리기술 개발에 특화된 전문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고에너지물리연구소는 암흑물질 탐색, 중성미자 및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또 미래 우수연구 인력을 양성해 국내외 연구를 선도하는 고에너지물리 및 천문학의 융합 분야에 전문화된 중점연구센터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.

경북대 최재용 연구산학처장은 "이번 사업에서 3개 연구소가 선정된 것은 경북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"며 "내실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활동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June@news1.com

<저작권지속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스시스템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